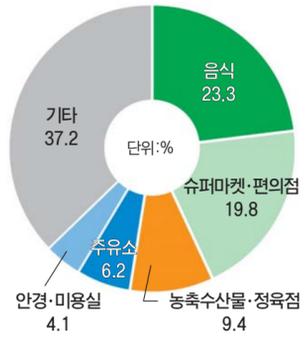


재난지원금 절반 먹거리·생필품에 지출

■ 재난지원금 사용처

(5월13일~8월31일 기준)



광주은행 카드 사용 내역으로 본 지역민 소비행태

음식점 23.3%...슈퍼마켓·편의점 19.8%

5월 13일부터 보름간 지원금 60% 집중 사용

광주·전남 지역민 절반 이상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음식점이나 슈퍼마켓·편의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5월13일 이후 보름 동안 전체 지원금 60%가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 KJ카드(신용·체크)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408억2100만원(5만819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선불카드(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 786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역 전체 지원금 9337억원(광주 3961억·전남 5376억)에 비해서는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카드로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5월13일부터 사용 만료기한인 8월31일까지 지원금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408억원의 99.8%인 407억2300만원이 소진됐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1억원은 기부로 간주된다.

광주카드 충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5만8191가구는 총 145만7285회 카드를 긁어 지원금을 썼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25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쓴 셈이다.

가구당 평균 누계 사용액은 69만9809원

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이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지급과 동시에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카드 재난지원금 사용액 60.8%인 247억4300만원(사용 횟수 79만2985건)은 5월 중에 소비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5월13일부터 시작된 점을 비추면 보름 동안 지원금 소비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6월에는 전체 사용액의 31.8%에 달하는 129억7700만원(53만2213건)이 쓰였다. 재난지원금 사용액 92.6%가 5~6월 두 달 동안 몰린 셈이다.

7월 사용비중은 5.4%(21억8000만원·10만164건)으로 크게 줄었고, 사용 마지막 달인 8월 비중은 2%(8억2300만원·3만1923건)에 그쳤다.

지역민들은 재난지원금의 절반 이상(52.5%) 먹거리나 생필품을 사는데 썼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으로, 전체 사용액의 23.3%에 달하는 94억7700만원이 쓰였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는 80억6200만원(19.8%)이 사용되면서 뒤를 이었고 ▲농축수산물·정육점 등 식품업 38억3600만원(9.4%) ▲병원·의원 27억6800만원(6.8%) ▲주유소 등 연료판매점 25억1000만원(6.2%) ▲안경·미용실 등 보건위생업 16억4700만원(4.1%) ▲스포츠·레저용품 15억5400만원(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비(14억5900만원·3.6%)나 약국(13억8200만원·3.4%), 자동차점비·유지비(8억9400만원·2.2%), 기타 의료기관(1억6900만원·0.4%) 등 생활 필수업종에서 지원금을 쓴 사례도 상당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구매 횟수도 1266건(1억5100만원)에 달했고, 재택근무와 '집콕' 영향으로 서적·문구(1만4124건·3억1800만원)이나 전기제품(2141건·2억9800만원), 컴퓨터 외 사무통신용품(1923건·1억3400만원) 구매 행렬도 잇따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여행(1450만원)이나 숙박(6400만원) 업종에 지원금을 쓴 비중은 '0%대'에 그쳤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6월 사용되면서 '반짝' 회복세가 있었지만, 7월 들어 소비가 일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의식업체 등 일각에서는 정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9.55 (+23.38)	↑ 금리(국고채 3년) 0.977 (+0.037)
↑ 코스닥 853.37 (+5.13)	↓ 환율(USD) 1183.00 (-4.80)

효성티앤씨, 美 '오스프리'에 친환경 소재 공급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효성티앤씨가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 '오스프리' (OSPREY)에 친환경 섬유 소재를 공급하며 글로벌 친환경 섬유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선다.



을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섬유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1일 효성티앤씨에 따르면 최근 개발한 '마이판 리젠 로빅'은 세계 최초 친환경 나일론 고강력사 브랜드로, 섬유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다.

가볍고 전을 찢을 때 저항하는 힘인 인열강도, 내마모성 등이 뛰어나 배낭·작업복·수영복 등 아웃도어 제품에 적합하고,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절감효과도 갖춘 친환경 섬유로 꼽힌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1분기부터 오스프리에 고강력 재생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 로빅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오스프리는 내년 봄 이를 적용한 플래그십 백팩 '텔러-템페스트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3대 아웃도어 전시회 'ISPO'에서 오스프리로부터 '친환경적 이고 강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성티앤씨는 최근 미주와 유럽 등

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글로벌 친환경 섬유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약 10%씩 성장 중이며, 2025년에는 약 700억 달러(한화 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티앤씨의 친환경 섬유 부문 매출 역시 2017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마이판 리젠(나일론), 리젠(폴리에스터), 크레올라 리젠(스판덱스) 등 친환경 섬유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고객들은 이미 기업에 높은 수준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효성은 그린경영 비전 2030을 기반으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 소재,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재난지원금 사용액·횟수 추이

(단위: 만원·건)



※ 광주은행 카드(신용·체크) 충전금 사용현황 분석



포스코 내년 임금 동결

포스코 노사는 1일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포스코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의 임금협약 제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3.44%의 찬성률을 거둬왔다.

포스코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대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저출산 극복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험생 건강식품 할인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 건강식품 매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을 90여 일 앞두고 수험생 몸 관리를 위한 건강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0일까지 관련 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인구주택 총조사 대비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출범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조사를 주관하는 실시본부는 대전 본청에 두고 호남통계청 등 5개 지방청 단위에 지역관리본부를 마련했다. 총조사는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조사(PC·모바일)와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법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대상이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코로나19를 대비해 조사원이 부득이 방문 조사를 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갤럭시노트20 보상판매

삼성전자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20 보상판매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보상판매는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구매하고, 기존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

단말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의 최대 2배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통신사 및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진행된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S시리즈, 노트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Z플립, 아이폰 6·7·8·X·11·SE 등이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